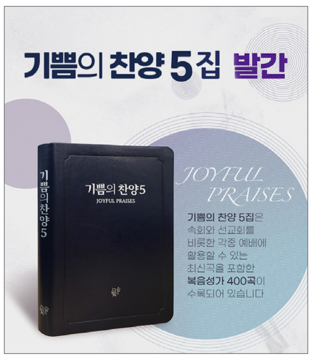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제16대 서울남연회 감독, 김정석 담임목사

서울남연회와 감리교단 발전 위해 광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세워갑니다

지난 10월 12일 전국적으로 치루어진 감리교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선거에서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가 제16대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되었다.

영등포구 소재 대림감리교회에서 치루어진 서울남연회 선거에서 총 투표자 783명 중 7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석 목사는 481표를 획득, 265표차로 당선되었다. 이는 역대 교단 선거를 통틀어 92%라는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과 67%의 최다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높은 득표율이 상징하는 의미는 앞으로 한국감리교단에서 서울남연회와 광림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당선 소감으로 "그동안 선거를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 장로님들이 연회를 위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많이 들었습니다. 연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을 생각하면서 주신 사명, 섬김으로 충실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남연회 모든 회원이 하나 되어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에서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신 광림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감리교는 전국에 걸쳐 11개 연회와 미주자치연회가 있는데 각 연회의 대표자가 감독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서울남연회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강서, 강서동,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등 서울 한강 이남 지역 15개 지방, 총 426개의 교회가 있다. 광림교회는 남연회 15개의 지방회 중 강남지방회에 속해 있다.

이번에 당선된 감독회장을 비롯 각 연회감독은 10월 29일(목) 열리게 되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종전의 경우 전체 당선자들이 한 곳에 모여 회의를 했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의 8개 교회로 분산해서 개최하게 된다. 서울남연회는 10월 29일 오후 1시에 광림교회에서 모일 예정이다.

선거 준비위원장을 맡은 장세근 장로(장로회장)는 "사랑하는 김정석 담임목사님의 서울남연회 16대 감독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뒤에서 합심기도 해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고, 준비위원 장로들은 투표권을 가진 타지방 장로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진심을 담은 남연회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담임목사님 또한 연회에 소속된 목회자들을 개별적으로 모두 만나서 경청하고 소통하였습니다. 신임감독이 되신 담임목사님의 공약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절실합니다"라고 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서울남연회가 되기 위해 광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할 여러가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선거공약과 비전은 8면에 계속 >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2 광림의 강단 — 삶의 문제 앞에서
3 광림 스토리 — 남선교회 연합월례회
4 하나님을 만나다 — 광림남교회 수험생 기도회
5 다음세대 — 교육국, 샤이닝 스튜디오
6 특집 — 국제광림비전랜드 – 3
8 특집 —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공약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요한복음2장11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처음으로 기적(표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을 보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당시 포도주는 일반적인 식사 자리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고, 축하와 기쁨의 의미를 담어 잔치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포도주는 잔치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것으로, 잔치의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문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잔치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어떤 문제는 작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 능히 감당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며, 삶의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문제의 자리에 계심을 알고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잔치자리에는 많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그렇기에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것이고 무엇보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았지만(4절), 마리아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시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문제의 자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문제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1절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둘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 간구하였다는 사실이지만, 본문은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건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을 보시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7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8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넣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fake)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기준과 다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주님은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문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삶의 문제를 능히 이겨내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이 베푸신 축복을 나눠야 합니다.

혼인 잔치의 문제의 해결은 결국 마리아의 간구와 종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간구와 순종 가운데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10절)라며 칭찬하였고,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잔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 잔치에서 당연히 가장 큰 축복의 수혜자는 신랑과 신부이지만, 믿음의 간구와 순종을 보인 마리아와 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축복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 결국 모든 이들이 주님이 베푸신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이 전하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간구와 순종을 통해 허락하신 복을 단지 나만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창 12:3)이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보여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간구와 순종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스며들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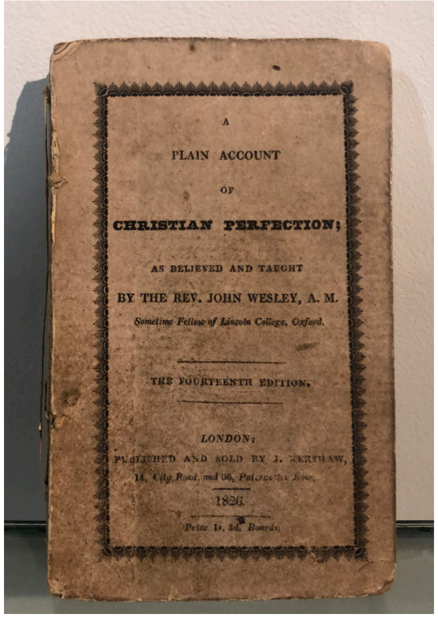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광림 헤리티지 & 비전홀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7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



영국의 인쇄술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되긴 했으나,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 출판물의 보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금 세공업자였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통해 성경 보급과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영국의 인쇄술을 통한 종교 서적의 보급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감리교 운동을 소개하고 복음주의 경건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존 웨슬리는 많은 신학서적과 주석, 설교집, 찬송집 등을 출판하였고, 그의 대표적인 저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아직까지도 출판되고 있는 책입니다. 광림 헤리티지 & 비전 홀에는 1700년대 후반 출판된 존 웨슬리의 설교집과 함께 1826년 출판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14판 소책자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용어는 신적인 완전을 의미하거나, 오류나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며 육체에 머물러 있는 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반쪽 헌신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통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는 동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웨슬리는 설명합니다. 또한 완전한 자도 실수할 수 있으며, 완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을 강조한 이유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여 1739년 말에 '감리교도의 특징(The Character of a Methodist)'이라는 전도지를 만들었고, 1766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을 낳는 뿌리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비뚤어진 사랑이 바로잡혀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성화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삶에 대해, 그리고 존 웨슬리의 성화론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어 번역서로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출판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후정 역)이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남선교회 11개 선교구 연합월례회 동시에 열려

10월 11일 3부예배 후 사회봉사관 부속실에서

10월 11일 주일 3부예배후 남선교구 총연합회에 속한 11개 선교구 연합회 월례회 모임이 사회봉사관 세미나실을 비롯한 교회 부속실에서 일제히 열렸다.
평소에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남선교회 총연합회 월례회가 열리고, 다음달 첫 주일에 선교구 연합회 모임을 갖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모든 모임이 중단된 상태에서 예배 정상화의 일환으로 선교구 월례회를 같은 날짜에 동시에 하게 되었다.
3선교구 연합회장인 곽유근 권사는 "9월에는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어렵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교회를 한번 쉬게 되면 그것에 익숙해 지고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연합회가 활기를 찾게 되면 선교회와 속회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했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 총연합회장)는 "정규예배가 아직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남선교회 예배는 제자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남선교회에는 11개 선교구 연합회와 개체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임이 시스템화 되어 제대로 움직이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야만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고 했다.
또한 남선교회가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계산상기도회, 통일성취기도회, 스데반페스티발이 취소되고, 선교구 성가제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립기념주일인 11월 1일 택시데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이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의 선교방침에 부응하여 사랑나눔행사나 미자립교회 및 해외선교지에 대한 후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남선교회에서는 사랑의 쌀을 나누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시설을 방문하여 후원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업본부 고형탁 권사는 "교회에서 결혼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쌀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쌀은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고 했다.
선교구 연합월례회가 정상화 되듯이 남선교회 모든 사업들도 남선교회 회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포토 뉴스

속회지도자교육 선물추첨
이번 주 기프트속회는
6교구 2속이 당첨되었다.

감독당선 축하기념
10월 18일 장로회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나사렛성가대 창단40주년
나사렛성가대가 창단40주년을 맞았다.

프레시온전도학교
프레시온 전도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담임목사 동정

10/12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
10/14	수요치유의 신학
10/20	감독 간담회
10/22	총회 선교국위원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주께 나아오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생활방식으로 인해 서로가 만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어지니 신앙생활에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보니 사랑이 넘치는 예배와 친교의 모습이 점점 축소되고 만남의 시간도 줄어들어 코로나 이전의 모든 시간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이면 교회학교 초등부 아이들과 비전랜드에서 즐겁게 물놀이와 체험활동을 하며 성경학교의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교회에서 1박 2일로 파자마파티를 했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던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스데반 선교회와 속회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성령님 동행하시며 마음을 열고, 주신 은혜를 나눴던 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와 스데반 페스티발 등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 하며 믿음의 선후배님들이 서로 밀고 끌어주며 나눴던 많은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광림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 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천국백성 삼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고 바라는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는 삶이 되도록, 또 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길 원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교회학교와 스데반선교회, 속회와 가정과 회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전의 평범했지만 귀한 시간들이 다시 주어졌을 때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일들을 간증의 도구로 삼고 더욱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길 소망 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심승욱 집사
(남선교회총연합회 스데반센터장)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마치며

광림남교회

2020년 9월 21일(월) ~ 9월 25일(금)까지 5일 동안 광림남교회 고등부 주관으로 새벽 6시, 사회교육관 3층 초등부 예배실에서 광림남교회의 30명 수험생들을 위해 1차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광림남교회의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뜨거운 찬양을 통해,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합심기도를 통해 이번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1)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2) 입시 가운데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옵소서, 3)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4)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자녀들이 모든 진로와 입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열정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딤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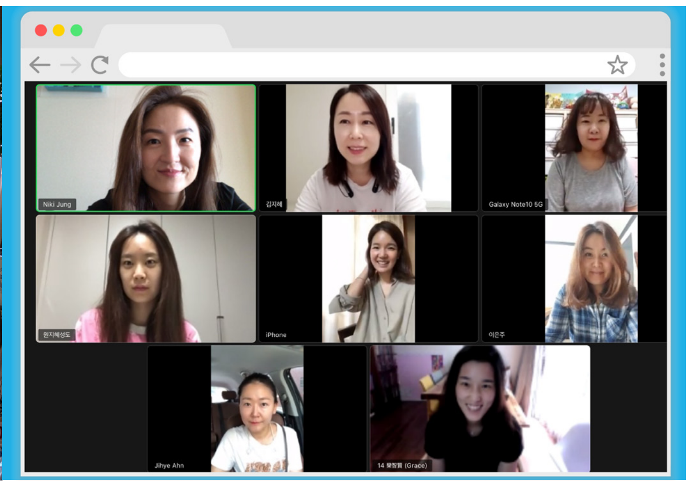
디모데의 신앙은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이 이어져 온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번 기도회가 자녀들의 진로를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부모님의 신앙이 전해지는 믿음의 유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키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험생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우리 선교회는 따로, 또 같이 모여요

(26마리아 / 17-1, 17-4마리아선교회)



오늘은 17-1, 17-4 마리아가 모처럼 선교회로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마리아는 원래 작년까지 17-1 마리아 선교회로 함께 모였었는데 올해 들어, 17-4 마리아 선교회로 나뉘어져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5지구 속도원들입니다. 매주 같이 속회를 드리기는 하지만 17-1, 17-4 마리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선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따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17-1, 17-4 마리아는 한분의 권사님과 네 분의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내기 성도들이 마리아 회원으로 있습니다. 거의 30대 후반, 40대 초반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육아와 교육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회비가 매달 국내외 선교후원금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비록 코로나19로 제대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매월 선교회비는 꼭 보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수)에는 선교회원 집에 모여 자체 아나바다를 열고 각 가정의 자녀들의 작아진 옷들, 신발, 헌책 등과 다양한 육아용품 등을 구입하여 바자헌금을 충당했습니다.
2020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17-1, 17-4 마리아 선교회는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여선교회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선교 후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모이기에 힘쓰는 선교회가 되도록 발돋움하는 병아리 같은 새내기입니다.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요즘 부흥하고 있는 26마리아 선교회의 또 다른 형식의 예배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줌으로 매월 1회 선교회로 나눔을 하고 있는 26마리아는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6교구 마리아 선교회(9월)

사회 : 김지혜 집사

· 신앙고백	다 같 이
· 시작기도	이은주 권사
·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2장 20~22절)	문지인 성도
· 설교 및 나눔 "깨끗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	김지혜 집사
· 회계보고	임혜민 회계
· 폐회기도	김지혜 집사

〈기도응답〉
1. 이강헌 집사님 – 좋은 새 현장 발령
2. 권상훈 성도님 – 새로운 직장 예비
3. 김한비 성도님 – 서울로 근무처 이전

우리 마리아들은 각자의 모습대로 최선을 다해 곳곳에서 코로나를 극복하며 선교의 비전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연약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에스더 루디아 선배들처럼 선교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임 권사(17-4 마리아선교회장)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합니다!

LFC 청년부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광림교회 청년부는 10월 한 달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예배 캠페인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합니다'를 진행합니다.
8월 말 발생한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고 있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배 캠페인을 계획하게 되었고, 청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코로나 이전 상태로의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예배 캠페인을 교역자와 교구장들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1일까지 주일 오후 3시, 청년부 세미나 1실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와 속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였으며 참석한 전술잎 교구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예배에 대한 많은 혼란스러움과 고민이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 힘으로 새 기도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일 정부의 발표 이전까지, 공동체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본당과 벧엘 성전, 교육관 등을 개방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예방적 거리두기, 손 소독, 교인 카드 및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청년부 교역자와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심방을 시작합니다. 개별적으로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청년부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참여한 서희원 지구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슬프고 화도 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드라마 보듯 시청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예배당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첫 찬양부터 하나님께서 '이 곳에 잘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느꼈던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매순간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꼈고, 또한 '여기 예배당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드림으로 청년들의 신앙과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믿음을 뿌리고 헌신 심는 교회학교

샤이닝 스튜디오 제작해 온라인으로 복음 전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여기 광림교회 학교에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샤이닝 스튜디오'를 제작한 1선교구 3교구의 박인수 교사이다. 박인수 교사는 교육관 3층에 스튜디오를 별도로 제작하여 교사들이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사비로 스튜디오에 방송국에서 사용 중인 조명 등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신진찬 교사와 박나영 교사도 보조로 함께 스튜디오 제작에 힘썼다. 방음과 차음이 되는 시트와 화재방지를 위한 방염판도 부착하는 등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 모두가 쉬는 추석 연휴에도 스튜디오 제작에 힘을 다하며 2주 이상 스튜디오 공사를 진행했다. 이런 헌신과 노력의 열매로 샤이닝 스튜디오가 탄생하게 되었다.

둘째로, 이 스튜디오를 통해 다음세대와 소통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이다. 중등부에서는 "놀면 뭐하니? 믿음 '쎈 언니들', 전도원정대가 찾아간다!"라는 주제로 총력전도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온라인 전도 캠페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주차 : 근's 쌤과 함께 하는 찬양 배우기
2주차 : 한's 쌤과 함께 하는 워십 배우기
& 보이는 라디오
3주차 : 향수 키트로 하나님의 향기를
뿌려 뿌려~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중등부 교사들은 샤이닝 스튜디오에서 신선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했다.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중등부 친구들은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초대가 되어 입장하게 되는 친구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선물이 배송된다. 교사들이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만큼 다음세대들의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학교의 각 부서들이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다음세대와 소통하고 다음세대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도록 각 부서에서는 다양한 예배의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온라인 예배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드리는 신앙고백과 기도로 인하여 예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고 예배는 더욱 풍성해졌다. 또 아동부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줌'을 통한 예배도 진행하고 있다. 줌을 통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덕분에 아이들이 교회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시편 126편 5~6절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신과 노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기쁨으로 거두되 차고 넘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박지윤 전도사(교육국)

신앙 간증

다시 듣게된 하나님 음성

저는 광림 청년부 6교구 2지구장 김태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학교를 거쳐 청년부로 올라와 많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의무처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왔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결되지 않고 쌓여있던 신앙에 대한 고민들과 회의감으로 인해 섬기던 속장 및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1년 정도 방황하며 교회를 멀리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자라면서 경험 했던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 불완전하게 변해가는 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 하셨습니다. 또한 곳곳에 미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은 결코 사람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제게 지식이 아닌 실재로, 또 나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귀한 딸아, 내가 네게 준 은혜와 회복의 순간들을 네가 입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데에 너를 사용할거야.' 이렇게 저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려놓았던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꺼내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장면처럼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목숨을 다하여 양을 치고 먹이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함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내 힘과 열정으로 감당해내려 했던 많은 일들은 나를 지치고 넘어지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들을 뿌릴 때 백배가 천배가 되도록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기쁘게 거두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태연 지구장(청년부)

수영 물놀이

맨손 미꾸라지 잡기

체력UP↗ 비전UP↗

국제광림비전랜드 (3)

국제광림비전랜드는 대자연속에서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돕는 전문교육시설이다. 2년마다 실시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에서 2016년부터 연속해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비전랜드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체험, 교육, 이벤트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인증제를 통해 개발된 모든 프로그램은 안전한 운영으로 지난해만도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2008년 개관 이래 이용객수 30만 명 이상으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수련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인증 프로그램인 봄&가을 당일현장학습, 임원수련활동, 학년수련활동 등이 운용되고 있으며, 하계수영캠프와 동계스키캠프 등 맞춤식 청소년 수련활동 서비스로 청소년들에게 큰 교육효과와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수준 높은 강사진을 통한 다양한 체험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기한 숲거울보기

잔디썰매타기

숲밧줄 놀이

얼음썰매타기

상담 문의

- ▶ 초등 현장학습 예약문의
  031-336-7170
  010-5394-0837
- ▶ 초중고 수련회 예약문의
  010-4579-0200
- ▶ 교회단체 예약문의
  031-592-1163
- ▶ 유아단체 예약문의
  010-7192-7170

모험놀이 트래킹

숲속 오감체험

청소년 활동인증 프로그램

유아부터 청소년들까지 봄, 가을 현장학습과 소풍 등을 '숲속문화창의체험'을 통해 활동할 수 있으며,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계절별로 사계절잔디썰매, 미꾸라지 잡기, 드림카레이싱, 미니올림픽, 숲속 오감체험 및 트레킹, 숲 밧줄놀이, 알밤 줍기, 미션 성쌓기, 민속 줄다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풋살 경기

걸리버성 쌓기

방향제 만들기

마술체험

신나고 재미있는 체험 학습

케익 만들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은 진로코칭을 통해 자기성장을 이루며, 나만의 강점과 꿈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로드맵 할 수 있다. 창작공예(도자기 머그컵 공예), 공연예술(마술체험), 음식요리(케익만들기) 분야 등과 뮤지컬, 목공, 민속음식 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두란노 하우스

로고스 콘도

실로암 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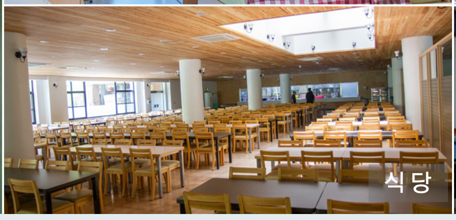
숙박시설

국제광림비전랜드에는 두란노하우스, 로고스콘도, 실로암콘도 등의 콘도식 숙소가 있다. 2인실, 4인실, 12~30인실 등 천여 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으며, 교육실, 세미나실, 강당, 300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식당과 샤워실 등 국제적인 규모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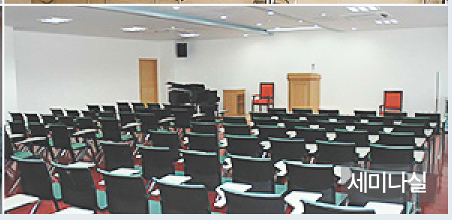
2인실

다인실

샤워실


식 당

강 당


세미나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하나님

- 목회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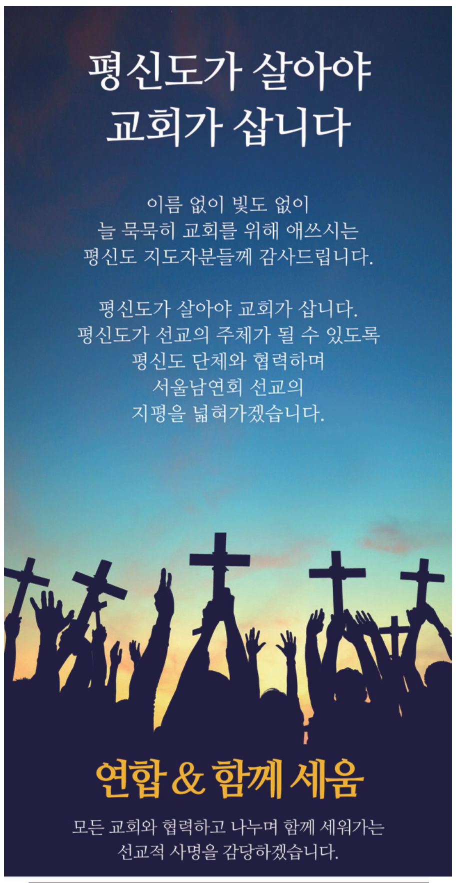
이재근 목사 (경찰대학교)

경찰대학 사역의 두 축은 기존신자를 더 성숙한 신자로 양육하는 것과 불신자를 신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교회를 중심으로 기독학생회, 교직원선교회와 직원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신자에 대한 사역은 활발한데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학생들과 교직원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전도를 소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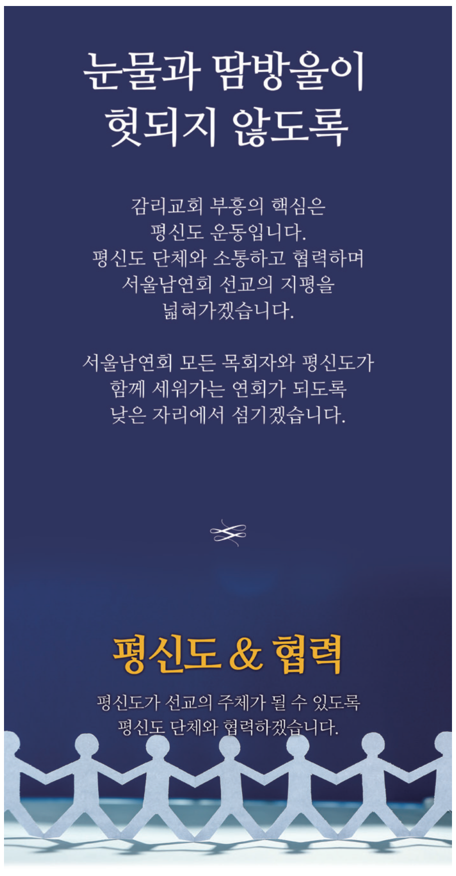
제가 보수적인 신앙과 체험을 통해 목사가 되기를 서원해서 신학교에 갔지만 자유주의신학을 배우면서 크게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성의 유한성과 '논리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학공부를 했었다는 것을 아시는 경찰대학 교수님의 요청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철학과 공직윤리〉라는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 후에 몇몇 학생들이 찾아와서 경찰대학 최초로 철학동아리를 만드는데 저에게 철학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철학동아리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금년 졸업식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에는 제가 〈철학, 윤리, 인성〉 〈공직자를 위한 인문학〉 두 과목을 강의하게 되어서 믿지 않는 학생들, 행정직원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관계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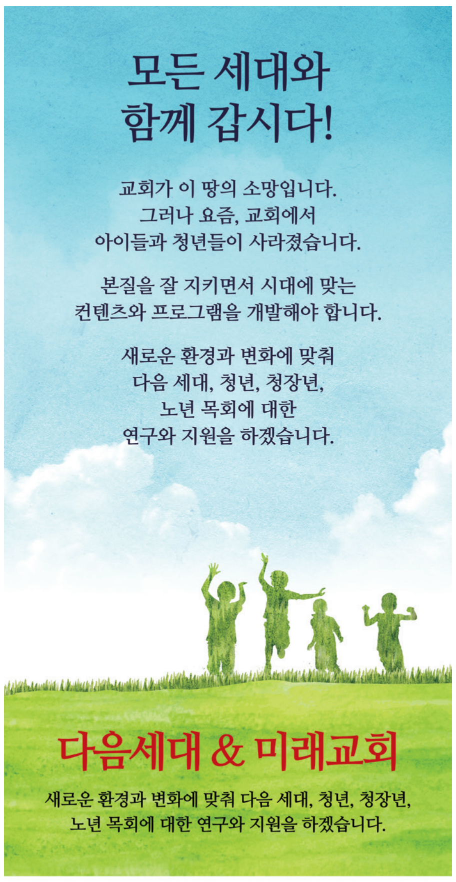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앙적 방황과 세상학문인 철학을 공부한 것까지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이라고 믿고 경찰대학 복음화가 경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로 확장될 수 있도록 오늘도 더욱 기도하고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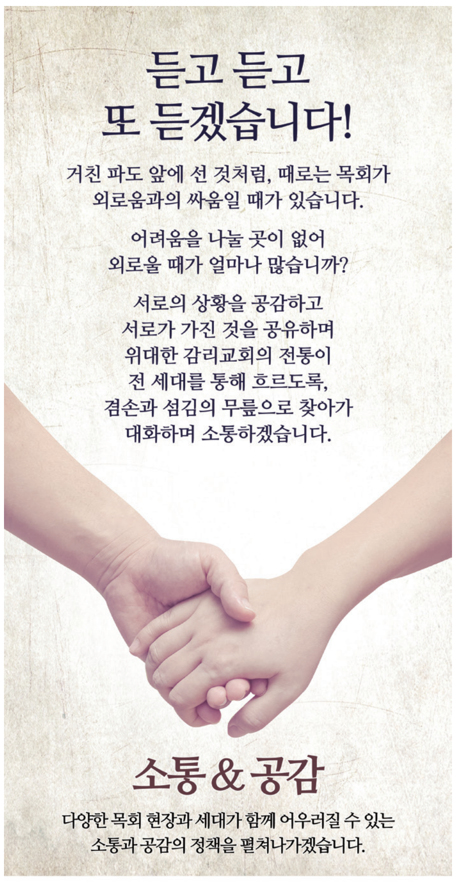
- 비전교회의 자립과 부흥을 위한 정책
- 비전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 기금 마련
-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결 사업
- 학원, 군부대, 병원, NGO 등 기관 선교 연구 및 협력



- 평신도가 분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평신도 연합운동 및 봉사의 장 마련
- 선교의 지평이 국제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움



- 미래 교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세미나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지방 현실에 맞는 행사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노년목회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 각 분과 위원회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 비전교회에 대한 생활 안전망 형성
- 청년 목회자 네트워크를 통한 젊은 세대와 소통
- 전도 및 기도 훈련 프로그램 공유

Standing Together!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연회” Stronger Together!

감독선거 홍보물로 본 김정석 담임목사의 공약내용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가 선출되었다.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남연회”라는 정책 비전을 내세운 김정석 담임목사는 10월 12일(월) 서울남연회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제34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16대 감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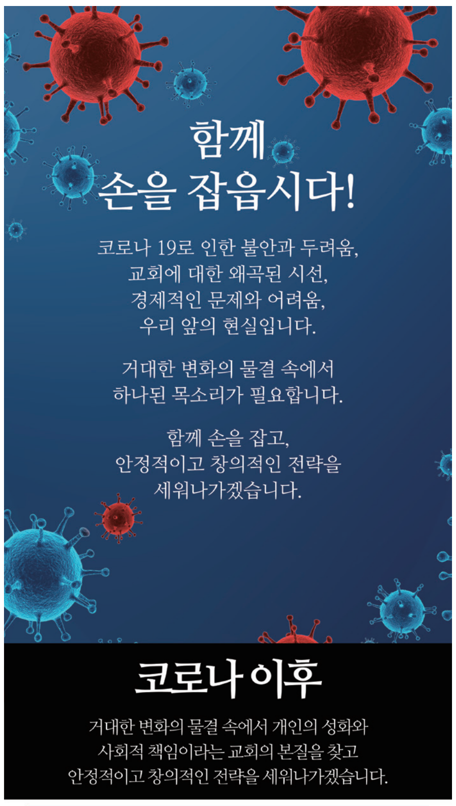
김정석 담임목사는 당선 직후 “서울남연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남연회 연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남연회의 위상을 높이며 정책이 잘 실현 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리에서 소통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석 담임목사가 서울남연회 감독에 출마하며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정책 비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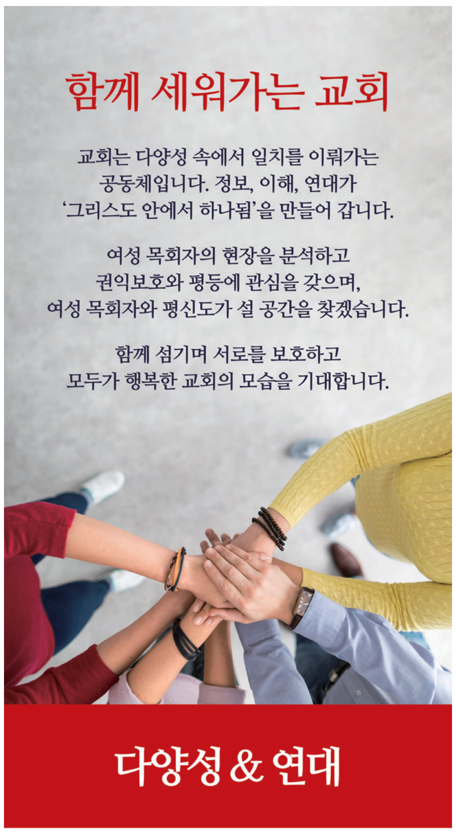
“함께 성장하는 연회/ 평신도가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연회/ 다음세대를 세우며 교육에 힘쓰는 연회/ 코로나(코비드) 이후를 준비하는 연회/ 미래로 나아가는 연회” 등 정책 목표와 핵심 추진사업을 통해서 서울남연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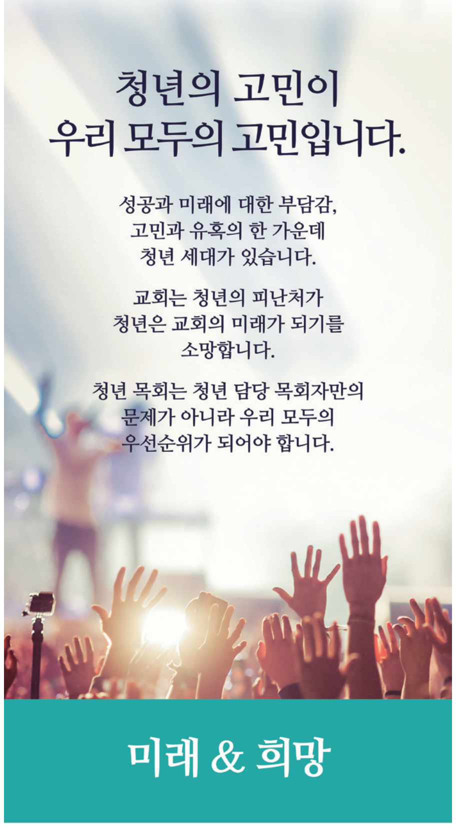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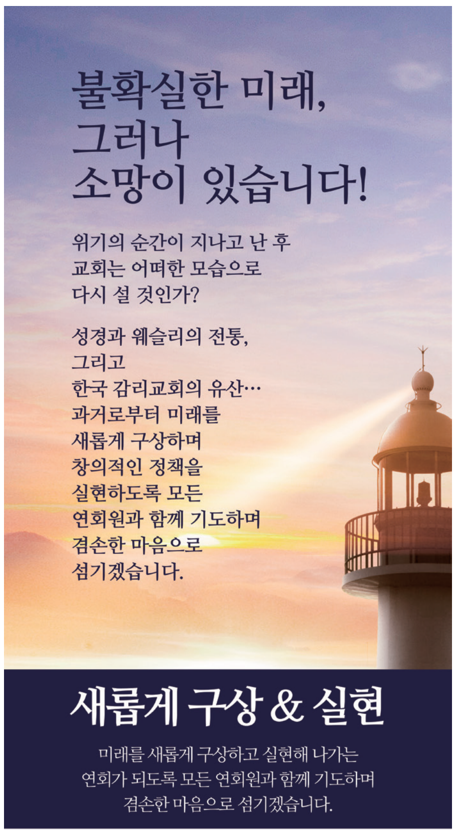
-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컨텐츠
- 복음적 선교방안
- 성령운동
- 소통을 위한 플랫폼
- IT 목회 연구 및 지원



- 여성 목회자들이 전임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미혼 목회자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여성 목회자의 권익보호와 목회의 양성평등화 운동
- 목회자의 성인지감수성 교육



- 청년 담당 목회자 네트워크 형성
- 청년 목회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 청년을 위한 이단 대책 수립 및 교육



- 연회 역사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준회원 목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정책 연구 및 실행

편집인 김대영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재현 김혜경 박신애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net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